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12/25(월)~30(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풋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

[빌립보서 3:12-2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12-21]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듯,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1.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달음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달음질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에서 해설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동일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 우쭐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리면 됩니다.

2.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바울은 세상을 따르는 자를 본받지 말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론 업적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결국 부끄러움만 주게 될 세상 가치관을 따라 탐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삶의 풋대로 삼고 신앙의 경주에 매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본보기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해서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달음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귀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개선 행진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천상의 소리에 맞추어 우리 앞에 놓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나눔 1. 내가 신앙적으로 닳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있나요?

2. 나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지체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향기

[빌립보서 4:1-23]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1-23]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은 헌금 자체보다 그 실천이 증명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감사와 사랑의 관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고난에 동참했기에 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과거에 베푼 도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복음의 시초'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즉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빌립보성도들은 그때에도 두 번 바울이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의 12~13년 전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모금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10년도 지난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유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임과 영적 건강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바울은 다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보낸 재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원어상 '완불되었다'라는 뜻의 상업 용어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정확히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음을 확인해주는 말인데 이어서 바울은 그 후원금 덕분에 아주 풍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후원금을 또다시 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모금해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나 도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3. 주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1절에서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이는 로마의 황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사역을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눔 1.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2.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기도 나의 궁핍함을 넘어 타인의 풍요를 기원하며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사랑과 배려의 향기를 품게 하소서.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시편 95:1-1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5:1-11]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찬양하는 예배로 부름과 동시에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을 근거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예언자적인 신탁은 완악한 마음을 향한 온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의 경고로 끝맺습니다.

1. 순종이 있는 찬양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되 굽혀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함부로 나아가도 좋은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곧장 청종해야 한다. 순종이 없는 찬양은 현실도피로, 찬양이 없는 순종은 율법적인 맹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2. 목상이 있는 찬양 감사의 찬양과 시를 지어 즐거이 찬양할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참 신이요 왕이십니다. 내 삶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그쳤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고 그분 없이 안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상하는 기쁨이 있고서야 참된 기쁨이 깃듭니다.

3. 불순종의 결과 세상을 지으신 이가 우리도 지으셨으며, 땅의 깊은 곳을 만드신 손으로 양인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굽혀 경배하는 자리로 가야합니다. 목자가 목자 노릇하고 양이 양 노릇할 때 가장 즐겁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근심하고 노하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내버려두심으로써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눔 1. 외적으로는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있었으나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끊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2.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끊어졌을 때 취하는 자신만의 회복 방법에 대해 나눠봅시다.

기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늘 살아있게 하소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

[시편 96:1-13]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6:1-13]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의 행복에 둡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잡기 어려운 파랑새와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쉽게 도망가 버립니다. 손에 잡혔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1. 노래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놀라운 창조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세계와 구원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2.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들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림같이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참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 때 인생은 거룩함을 잃고 존재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3.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생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의 온전한 완성을 보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 되십니다. 소요리 문답의 고백처럼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나눔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요, 인간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2.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기도 인간 존재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생을 누리게 하소서.

합당한 찬양과 감사 기도

[시편 97:1-12]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7:1-12]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부패한 지도자 밑에서는 관료들도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밑에서는 충신들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1. 공의와 정의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악한 것들은 불에 사름같이 사라져 버리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온 세계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나 악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진리가 충만하며 어두움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함과 연악함을 보고 경험합니다. 지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대국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예외 없이 쇠락해 갑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나라의 한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며, 그 나라가 번성하여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2. 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심판의 예고와 성취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며, 증오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영광의 나라가 나타난 사실로 인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청산하고, 버리며, 어떤 것들은 부수어버림으로 새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3. 악인과 의인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성도의 영혼을 보전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조차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것임을 명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인답게 사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됩시다.

나눔 1.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시작의 날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은혜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보세요.

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특권이며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즐거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시편 98:1-9]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8:1-9]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지겨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역시 새 노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누리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의 힘이 됩니다.

1. 구원을 베푸심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죄인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지향점이기에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일깨우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매일 가져야 할 능력의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2. 만물의 찬양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과 만물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우주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요, 치유의 때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때이므로 그분을 향한 찬양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협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이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3. 의와 공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와 어둠을 분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치우침이 없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공평은 죄악으로 뒤죽박죽되어 버린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심판을 포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의와 공평이 넘칩니다. 구원은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일원이 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순종 뿐입니다.

나눔 1.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구원의 날,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대로 나누어보세요.

2. 한해동안 가정예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나누어보세요.

기도 구원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가정예배는 공동체성경읽기로 합니다.

별도 가정예배문은 배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주세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역자들에게 문의해주세요.

